

중국어 대표 변이모음 귀납의 다양성과 교육에 대한 소고

송시황*

<目 次>

1. 문제 제기
2. 고모음
3. 중모음
4. 저모음
5. 한어병음 모음 교육
6. 결론

1. 문제 제기

중국어 교수 과정 중에 학습자들이 말하다 shuō의 끝 부분 /o/를 그대로 [o]로 발음하자 [a]로 지도하였다.¹⁾ 학습자 대부분은 한어병음 자모를 하나의 대표음 음가로만 인식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표기 부호인 한어병음과 대표변이음 그리고 변이음의 상관관계를 주지시켰으나 정확히 이해하지 못 하는 듯하였다.

중국어를 교육할 때, 한자의 3요소인 형(모양)·성(소리)·의(뜻)를 근거로 한자의 우수성을 강조하나 사실 글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언어는 형·성·의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 '학교'는 모양(한글)을 갖추고 있고, [학꾜]라는 소리를 그리고 뜻을 갖추고 있다. 중국어의 '學校' 또한 한자의 모양, [ɛyɛ ciɑo]²⁾의 소리

* 신한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1) 王理嘉(1991:103)에서 한어병음 uo의 o는 혀가 [o] 보다는 아래에 위치하며 원순성이 아닌 비원순성으로 정밀전사하고 있다.

2) 본고에서 중국어는 '普通話'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며, []는 음가를 나타낸다. 중국어에서

그리고 뜻을 갖추고 있다. 영어, 일본어 또한 모두 형·성·의를 갖추고 있다. 형은 사회적 약속이며 부호이다. 성은 언어마다 다르게 발화되나 발음 부호를 이용하여 표기하면 이것 또한 사회적 약속이다.

근대 이전 중국어 발음 표기는 반절법을 사용하여 표기하였고, 그 이후 주음부호, 로마 자모 등의 부호를 사용하여 표기하고 있다. 주음부호는 성운학 관점에서 음절을 성모와 운모 그리고 성조로 나누어 표기하였다. 한어병음은 음소 개념을 흡수하여 음절을 자음과 모음 그리고 성조로 나누어 표기하였다.

중국어 표기음에 관한 국내 학술 연구는 대부분 교학분야(신아사, 2010)와 실험음성학 분야(권영실, 2012; 맹주익, 권영실, 2007a, 2007b; 이미경, 2006)에 치중되어 한어병음 대표음과 정확한 음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 한희창(2010)은 중국어 단모음 변이음에서 대표변이음으로의 귀납 과정을 서술하였으나 이론적 접근이 부족한 듯하다.

실제음의 음가를 부호로 귀납하거나 대표변이음으로 귀납할 때는 상보적 분포를 이루고 있는가? 음이 비슷한가? 음소 귀납이 체계적인가? 음소를 최소로 설정할 수 있는가? 중국인의 음감(音感)에 부합하는가? 역사적인 음운현상을 고려하고 있는가?³⁾ 등등의 음소귀납원칙을 고려해야 한다(趙元任, 1980:33, 王理嘉, 1991:73, 1997; 陳華斌, 2003).

한어병음의 /a/는 대표음으로써 위치와 청자의 음감에 따라서 ba[A], ai[a], yaof[a], yan[ɛ], yuan[æ]으로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서로 다른 음 [A, a, ɑ, æ]는 변이음(音素 혹은 變體)이며, 변이음 중에서 하나의 대표변이음(音位)으로 귀납할 수 있다.⁴⁾ 비록 국제음성학기호(IPA)를 사용하여 대표변이음을 표기하더라도 이 대표음 또한 여러 가지 변이음을 포함한다.

시간적 제약 때문에 본고의 연구 범위는 모음으로 한정시키며 주로 대표변이음 귀납의 다양성과 한어병음 교육에 대하여 서술하겠다. 아울러 중국어 표기 부호의

[]의 부호는 IPA를 사용하여 음가를 나타냈으며 성조 표기는 생략한다.

3) 互補性, 相似性, 系統性, 音位總數以少爲貴, 本地人對音的感覺是覺得自然, 和歷史的音韻相吻合.

4) 부호 / /는 음소를 나타낸다. 대부분의 한어병음 음소에는 아무런 부호를 사용하지 않았고, 간혹 식별의 편리를 위해서 / /의 부호를 사용하였다.

대표로 삼을 수 있는 한어병음과 주음부호의 우수성에 관한 논의는 회피하겠다.

2. 고모음

1) 중국어 고모음의 한어병음과 변이음

한어병음에서는 중국어 고모음을 i, u, ü으로 대표변이음으로 귀납하여 표기하고 있으며 변이음은 다음과 같다.⁵⁾

- ① i → [i] / { *tɕ, *tɕʰ, *ɕ, *ʒ, *ʈ, *ʈʰ, *s }_#;
- [ɨ] / { tɕ, tɕʰ, ɕ, ʒ }_#;
- [ɪ] / { ʈ, ʈʰ, s }_#;

- ② u → [u] / { *tɕ, *tɕʰ, *c }_#;
- [y] / { tɕ, tɕʰ, c }_#;

한어병음 u 는 설면전음(j, q, x)과 결합되어 발화할 때 [y]로 실현되고 이 외에는 [u]로 실현되어 상보적 분포를 나타낸다.

- ③ ü → [y]

위의 변이음 이외에도 王理嘉(1985)는 [i, ɪ, u, ʊ, y, ɨ, ɯ]으로 나타내고 있다. 변이음은 학자마다 주관적이나 근사음에 가깝게 표기하고 있다. 본고에서의 변이음은 참고문헌을 근거로 근사음을 나타낸다.

5) 화살표(→) 앞의 로마자모는 한어병음의 음소를 , 화살표 뒤 []는 변이음을 나타내며 IPA 기호로 표기하였다. /의 뒤 { }는 특정음의 조건을 나타내며, ' _'은 음소의 위치, '*'는 음의 조건에서 나타날 수 없는 음가, '#'은 음절 부호를 나타낸다.

2) 토론

고모음에서 대표변이음을 설정할 때 [u]와 [y]에 대해서는 대부분 이견이 없지만, 한어병음 i의 변이음 [i], [ɿ], [ɥ]에 대해서 줄 곧 한 개의 대표음으로 설정한 것인가 아니면 두 개의 대표음으로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토론되어져 왔다.

(1) /i/를 한 개의 대표음으로 귀납

1개의 대표음으로 설정하지는 이유는 첫 번째, 3개의 변이음이 상보적 보충과 비슷한 음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ɿ]는 설첨후음 뒤에서 실현되며 [ɥ]는 설첨전음 뒤에서 실현되고 마지막으로 [i]는 설첨전·후음을 제외한 성모 뒤에 실현된다. 두 번째는 역사적으로 [ɿ], [ɥ]는 [i]음에서 분화되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음소 귀납의 경제성 때문이다.

주음부호에서는 성·운·모의 원칙에 따라서 공운(空韻)을 설정하여 1개의 대표음으로 귀납하고 있다.

(2) /i/를 두 개의 대표음으로 귀납

2개의 대표음으로 설정하지는 이유는 첫 번째, 상보적 보충으로 대표음을 귀납할 수 없으며 [ɿ], [ɥ]와 [i]는 근사음이 아니며 현대 중국어에서는 압운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음소의 귀납은 역사적인 묘사가 아니라 공시적인 분석이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 음소의 수량만 생각하고 현실음 들을 무시한다면 귀납방식은 단편적이기 때문이다.

얼화 현상에서 운모가 고모음 [ɨ]일 때 [i]가 탈락되고 [ər]이 첨가되어 실행되고, 운모가 고모음 [i, y]일 때 [ər]만 첨가되어 실행된다. 王理嘉(1985) 또한 얼화운(兒化韻) 규칙을 근거로 [ɿ]와 [ɥ]를 하나의 음소 /i/로 귀납하고 한어병음의 i를 /i/와 /i/로 귀납하였다.

위의 두 가지 대표음 설정 방법에 대한 근거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음소귀납원칙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귀납 방법은 다양하다.

3) 소결

한 개의 대표음 귀납 방법에는 우선 음절을 성모와 운모로 나눈 후, 실제 존재하지 않는 공운을 설정하여 대표변이음을 귀납하고 있다. 두 개의 대표음 설정 방법에서는 음절을 자음과 모음의 음소로 나누어 대표변이음을 설정하고 있다. 화자가 발화할 때 성대의 움직임이 대부분 모음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반드시 존재해야하므로 /i/를 설정 한다.

본고에서는 고모음/i/을 대표변이음으로 귀납하기 전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제시한다. 첫째, 중국어 음절의 구조를 자음과 모음 그리고 성조로 나눈다. 둘째, 성조 대부분은 모음과 같이 실행된다. 이 조건에 충족시키기 위해 /i/ 대표고모음을 [i], [ī]으로 귀납한다. 대표음 [i]에 [ī]와 [ī]음을 포함시켜 주음부호의 역사적 음운현상을 고려하였다. 더욱이 한국어에도 [ī]가 있어서 쉽게 구분할 수 있다. [ī]에 [i, ī]를 포함시킨다. 끝으로 중국어 대표고모음을 [i], [ī], [u], [y] 4개로 귀납한다.

3. 중모음

1) 중국어 중모음의 한어병음과 변이음

변이음은 학자들의 음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표기하고 있어 대단히 주관적이다. 현실음 또한 주요모음의 위치와 성조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실현된다. 예를 들면, 雷와 累의 주요모음 /e/은 성조가 다름에 따라 각각 [e], [ɛ]으로 실현된다(王理嘉, 1991:76). 비록 변이음들이 성조에 따라 음가가 다르게 실현된다고 하여도 음가 발생 환경이 같으면 하나의 조건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王洪君(2008:51)는 감탄사, 의성어 ê, ô를 제외한 중모음에서 대표변이음 /ə/로 귀납하고 변이음들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영성모는 [∅]으로 표기한다.

- ④ ə → [ɻ] / { *p, p^h, *m, *f }_#;
 [o] / { p, p^h, m, f }_#; u_#;
 [e] / _i; u_i;
 [ɛ] / i_#; y_#;
 [ʌ] / _ŋ; {∅}u_ŋ;
 [ɔ] / { *∅ }u_ŋ; y_ŋ;
 [i] / i_n;
 [ə] / 기타 (_u; i_u; _n; u_n; y_n; i_ŋ; _r)

위에서 중모음 /ə/가 /i/로 발음되는 음을 주음부호와 한어병음으로 나타내면 一ㄱ과 in과 같다. 이것은 그의 독특한 귀납 방식이다. [ɔ]로 발음되는 음을 주음부호와 한어병음으로 나타내면 영성모가 아닌 ㄹ, ㄴ과 ong, iong과 같다. 권영실(2012)은 한어병음 ong에 대하여 실험분석, 청취분석을 진행하였는데 [oŋ]과 [uŋ]의 확실한 경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한어병음의 ong의 o를 정밀 전사를 하면 원순 고모음 [u]보다 아래에 위치하는 [u]와 원순 중모음 [o] 보다 위에 위치하는 [ɔ]사이에 위치하는 음 [ɔ]이다. 이처럼 전사의 방식에 따라서 변이음이 다르게 표기도 할 수 있다. 위의 변이음 [i]와 [ɔ]를 고모음으로 포함시키면 중모음의 변이음은 [e, ɛ, ə, ɻ, o, ʌ]가 된다.

한어병음에서 중모음 o와 e의 변이음을 표기하면 다음과 같다.

- ⑤ o → [o] / _#;
 [ɔx]⁶⁾ / { p, p^h, m, f }_#;
 [ə] / u_#; _u;
 [ɔ] / a_#;
 [ɔ] / _ŋ;

6) 혹은 [uo]

표기 부호는 한정적이지만 실제 발음은 부호에 비하여 무한적이다. 한어병음의 o는 음 표기 부호이지만 위의 예처럼 다양한 변이음을 갖고 있다. 순음과 결합할 때는 이중모음 [ɔʏ]으로 실현되고(이미경, 2006), 운미에 위치할 때는 [a] 혹은 [ɔ] 등으로 실현되기도 한다.

- ⑥ e → [e] / _i:
 [ɛ] / i_ : y_ :
 [ə] / _u: _n: _r:
 [ɤ]⁷) / {*p, *pʰ, *m, *f}_:
 [ʌ] / _ŋ:⁸)

중국어의 중모음은 성모가 원순음의 여부, 사구호(四口呼)와의 분포, 운미에 따라서 상보적 대립 분포를 이루고 있다. 성모가 순음일 때 현실음은 uo, ×ɔ [ɔʏ]로 실현되거나 중간음 u 를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인 모국어 화자는 현실음을 발화하는데 문제가 없고 음소의 경제성을 고려하여 대표 변이음을 [o]로 귀납시켜도 무방하다. 성모가 순음이 아닐 때는 [ɤ]로 실현된다. 운두가 [i], [y]일 때 [ɛ]로 실현된다. 운미가 [u], [ŋ]일 때 [a]으로 실현된다. 운미가 [ŋ]일 때 [ʌ]로 실현된다.

2) 토론

(1) 한어병음 /o/

실제로 한어병음의 o는 순음과 결합한 단모음일 때는 이중모음 [ɔʏ]으로 실현된다. 그런다고 o를 대표변이음 [ɔʏ]으로 귀납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순음(b, p, m, f)과만 결합되어 실현되다’는 말을 바꾸어 설명하면 이미 상보적 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순음과 결합되는 이중모음 ao와 삼중모음 iao를 각각 [aɔʏ], [iaɔʏ]로 음가를 표기하면 음소의 경제성에 위배되며 더더욱

7) 혹은 [ʉʌ]

8) 王理嘉(2005)는 [ə]에 포함시켰다.

중국어의 모음은 사중모음으로도 실현되어 중국어 모음 체계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2) 얼화운 음소 분석과 대표변이음

얼화운 [a]은 주음부호에서 儿로 표기하고 한어병음에서는 er로 표기하고 있다. 주음부호에서는 단운모로 분석하고 얼화운(兒化韻)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한어병음에서는 [a]와 [r] 두 개의 소리 성분으로 분석하고 있다. 주요모음은 [a]로 귀납하였고, [-r]은 [ɹ] 자음 음소와 함께 /r/의 변이음으로 귀납하였다. /r/은 단지 선행 음소를 권설 시키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음소적으로 분석을 하면 권설 기능을 갖추고 있는 /r/은 다른 모음과 함께 결합할 수 있는 편리성을 갖추게 된다. 얼화 현상으로 실현되는 중모음은 [ə, ɤ, o, ɛ]로 분포된다. 예:

根儿[kər] - 歌儿[kɤr]
 泪儿[lər] - 樂儿[lɤr]
 盆儿[pʰər] - 婆儿[pʰor]
 輪儿[luər] - 羅儿[luor]
 鷄儿[tɕiər] - 街儿[tɕier]
 須儿[ɕyər] - 靴儿[ɕyer]

위의 예(참조, 王理嘉:1991)에서 알 수 있듯이, 탈락 혹은 변음이 되어 [a]와 [ɤ, o, ɛ]는 최소 대립(minimal pair)을 이룬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대표변이음을 설정한다. 그러나 [ɤ, o, ɛ]에서 [o]는 다른 음소와 달리 원순모음이기 때문에 다른 대표변이음을 설정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얼화 현상과 입모양을 근거로 중모음 대표변이음을 [a], [o], [ɤ, ɛ]에서 각각 하나씩 설정한다.

(3) 한 개의 대표음으로 귀납

중모음에서 대표변이음을 한 개 혹은 두 개 그리고 세 개로 귀납하는 방법이 있다. 王洪君(2008:51)는 음소의 경제성을 근거로 중모음을 대표변이음 /ə/ 한 개로 귀납하였다. 음소의 경제성 원칙에 부합하나 하나의 대표변이음에 많은 변이음을 포함하고 있어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4) 두 개의 대표음으로 귀납

두 개의 대표변이음으로 귀납하는 방법으로는 한어병음처럼, o를 단독으로 대표변이음으로 귀납하고 [o, ɔ, ɔ] 등의 변이음을 포함시킨다. e를 다른 대표변이음으로 귀납하고 [e, ε, ə, γ, ʌ] 등 음소를 포함시킨다. 다른 방법으로는 /ə/를 대표변이음으로 귀납하고 [ə, e, ʌ] 등 음소를 포함시키고, /γ/를 대표변이음으로 귀납하고 [ε, γ, o] 등 음소를 포함시킨다. 이렇게 처리하면 [γ, iε, uo, ye]를 /γ, iγ, uγ, yγ/으로 표기하여 얼화 현상을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즉 얼화가 진행될 때, [γ]이 탈락되어 얼화운 [ə]로 진행된다(王輔世, 1963).

(5) 세 개의 대표음으로 귀납

세 개의 변이음으로 귀납하는 방법으로는 주음부호에서처럼, ㄛ (한어병음 o, IPA[o]와 상동)을 단독으로 귀납하고, 다시 ㄝ (한어병음 ê, IPA[e]와 상동)를 대표변이음으로 귀납하고 [e, ɛ]의 음소를 포함시키며, 마지막으로 ㄝ (한어병음 e, IPA[ʌ]와 상동)를 대표변이음으로 귀납하고 [ə, γ, ʌ]의 음소를 포함시킨다. 혹은 음소의 유사성과 얼화 음운현상을 근거로 [e, ɛ]와 [o, γ] 그리고 [ə, ʌ] 등의 음소를 각각 하나의 대표음으로 귀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세 개의 대표변이음으로 귀납하면 한 개의 대표변이음과 두 개의 대표변이음으로 귀납하는 것보다 경제적이지 않다.

그러나 王理嘉(1991:110)는 음소의 총수, 운모내부체계, 얼화운의 음소처리, 얼화운과 비얼화운의 대응관계를 고려하여 /ə/와 /γ/을 대표변이음으로 귀납하고 변이음은 각각 [ə, e, ʌ]와 [o, γ, ɛ]을 포함하였다.

3) 소결

본고에서는 비록 경제적이지는 않지만 중모음의 대표변이음을 각각 [o], [ə], [ɤ]으로 귀납하고 포함되는 변이음을 [o], [ə, e, ʌ], [ɛ, ɤ]으로 설정한다. 이유는 얼화 현상 파생되는 중모음의 분포가 대립을 이루기 때문이다.

한어병음 e 의 나머지 변이음 [e, ʌ]를 [ə]에 귀납시키면 중국어 중모음은 [o]를 대표변이음으로 귀납하고, 다시 [ə, e, ʌ]에서 [ə]를 대표변이음으로 귀납하고, 마지막으로 [ɛ, ɤ]에서 [ɤ]를 대표변이음으로 귀납하면 중국어의 중모음은 [o], [ə], [ɤ]으로 대표변이음을 설정할 수 있다.

4. 저모음

1) 중국어 저모음의 한어병음과 변이음

대표저모음을 귀납 방법은 복잡하지 않은 듯하다. 학자들은 중국어 저모음을 전설 [a], 중설 [ʌ], 후설 [ɑ]의 세 가지 변이음으로 귀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저모음의 선행 음소가 같지 않아서 서로 다른 음소로 발화된다. 예를 들어, 天, 團, 淵 의 주요모음은 한어병음에서 모두 /a/로 표기되나 각각 [ɛ], [a], [æ]으로 실현된다. 게다가 학자들은 烟과 淵의 현실음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다음 예는 王理嘉(1991:125)를 참고하였다.

⑦	煙	淵
	a → [ɛ]/i_n	a → [ɛ]/y_n (黃伯榮 등, 1991)
	a → [ɛ]/i_n	a → [a]/y_n (趙元任, 1980)
	a → [æ]/i_n	a → [æ]/y_n (羅常培 등, 1957)
	a → [a]/i_n	a → [a]/y_n (胡裕樹, 1981)

한어병음 a가 비록 다르게 [a], [ɛ], [æ]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이 음가들은 다른 변이음의 음가에 포함된다. 결론적으로 한어병음 a의 변이음을 [a, A, a, ɛ, æ]으로 귀납할 수 있다.

- ⑧ a → [A] / _#:
 [a] / _{i, n}: i_
 [a] / _o: u_: u_{n, ŋ}: i_o: u_j:
 [ɛ] / i_n:
 [æ] / y_n:

단모음일 때는 중설[A]로 발음되고 선행 음소와 후행음소에 따라서 전설[a] 혹은 후설[a]로 발음되며 제치호와 찰구호의 비운모에서는 각각 [ɛ]와 [æ]로 발음된다.

2) 토론과 소결

王理嘉(1991)는 曹劍芬 등(1984) 실험분석을 근거로 음절 내 운두는 후행되는 모음에 대해 영향이 적지만, 운미는 선행모음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대표변이음을 후설저모음인 [a]로 설정하고 대표변이음과 변이음을 다음과 같이 나타냈다.

- ⑨ /a/ → [A] / _#:
 [a] / _{i, n}:
 [a] / _{u, ŋ}:
 [æ] / {i, y}_n:

그러나 본고에서는 ⑧의 [æ] 변이음을 중모음 [ɔ]으로 귀속시키고, [ɛ] 또한 중모음 [y]의 대표음으로 귀속시키면 저모음의 변이음은 [a, A, a]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실험 분석의 결과를 근거로 저모음의 대표변이음을 [a]로 귀납한다.

5. 한어병음 모음 교육

중국어 변이모음은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i, y, ɿ, ʅ, u, ɪ, y, ʊ], [e, ɤ, o, ə, ε, ʌ], [æ, a, A, ɑ]로 실현된다. 본고에서는 대표 변이모음을 [i, i, u, y], [ə, e, ʌ], [ɑ]로 귀납하였다. 이 장에서는 한 학기동안 한어병음 교육을 수행한 체험(心得)을 서술하겠다.

1) 한어병음과 변이음의 관계

중국대륙에서 출판된 대부분의 중국어 개론서(現代漢語)에서는 IPA를 이용하여 하나의 음가로 표기하고 있다. 예: -i[ɿ, ʅ], i[i], u[u], ü[y], a[A], o[o], e[ɤ], ê[ɛ], er[ə]. 그렇지만 IPA로 표기된 음가 또한 대표변이음의 음가이다. 중국의 개론서의 학습 대상은 중국인 대학생들이다. 그들은 이미 모국어에 대한 음감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음운현상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중국어를 L2로 하는 한국인 초급학습자들은 아직 정확한 음감이 없기 때문에 한어병음과 변이음의 일대다 대응 관계를 정확하게 인지시켜야 한다. 동시에 동일한 변이음이지만 다르게 표기를 할 수 있음을 인지시켜야 한다. 예를 들어, 한어병음 표기는 e, a로 하지만 실제음은 [ɛ]로 실행될 때,

- ⑩ e → [ɛ] / i_ ; y_ ;
a → [ɛ] / i_n ;

한어병음 표기는 u, ü 으로 다르지만 실제음은 [y]로 같이 실행될 때,

- ⑪ u → [y] / {t, t', s}_# ;
ü → [y]

한어병음 표기는 e, o로 하지만 실제음은 [a]로 실행될 때,

⑫ e → [a] / _u: _n: _r:

o → [a] / u_#: _u:

한국어 /난, 낫, 낮, 낮, 날/은 [난]으로 실행되는 이철동음어를 위의 예와 함께 설명하였고, 대표변이음과 변이음 관계는 필자의 이름 ‘송시황’ 중에 ‘송’의 /ㅅ/은 [s]로 실행되나 ‘시’의 /ㅅ/은 [ɕ]으로 실행 예로 설명하였다.

한어병음과 변이음의 관계는 학습자의 능력에 다양한 결과를 나타냈다. 심지어 한 학기가 끝날 때도 습득하지 못하는 학습자가 있었다.

2) 한어병음과 사구호의 관계

중국어의 음절은 성모와 운모 그리고 성조로 구성되어 있다. i로 시작되는 운모를 제치호, u로 시작되는 운모를 합구호, ü로 시작되는 운모를 찰구호, i, u, ü 이외 음소로 시작되는 운모를 개구호라 한다. 한어병음 ong은 개구호로 인식할 수 있으나 [uŋ 혹은 ʊŋ]으로 실행되는 합구호이다. 성모와 결합하는 iong 또한 제치호로 인식할 수 있으나 찰구호이다. 한어병음을 창제할 때 두 개의 표기는 역사적인 음운 현상을 포기하고 실제음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주음부호에서는 역사적인 음운 현상을 고려하여 각각 ㄨㄥ, ㄩㄥ으로 표기를 한다.

중국어 교육에서는 ‘상보적 분포’라는 술어(術語)보다는 ‘성모와 운모의 호응’이라는 용어로 바꿔 사구호와의 관계를 설명을 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초급 학습자들에게 사구호를 쉽게 설명한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학습자들의 흥미를 잃게 되어 효율성이 없었다. 그리하여 사구호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거나 혹은 회피하고 정확한 실제음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다.

3) 국내 중국어 표기 부호의 형태

중국어 표기 부호의 형태에는 주로 한어병음, 주음부호, IPA 등의 기호가 있으나 한국에서는 한글 자모를 이용하여 심소희(1999), 맹주익(2009)처럼 표기할 수 있다. 모국어에 따라서 베트남에서는 베트남어를 이용하여 중국어를 표기할 수 있고, 태국에서는 태국어를 이용하여 표기할 수도 있다. 부호는 사회적 약속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한어병음, 주음부호, 심소희 표기법, 맹주익 표기법의 공통점은 음절을 단위로 표기했다는 것이다. 한어병음은 음절을 나타내기 위하여 격음부호와 y, w를 이용하여 표기하였고 주음부호는 한자 옆에 표기를 하였다. 심소희, 맹주익은 중국어 음절과 한국어 음절을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여 한국어의 음절 내에 중국어의 성운모를 모두 표기하였다.

필자 또한 운율구조의 관점에서 송시황(2014, 2015)을 근거로 한글을 이용하여 중국어 발음을 표기하였다. 그러나 심·맹의 표기법과 달리 중국어의 1음절을 한글의 2음절로 표기하여 중국어 발음교육을 진행하였다. 예를 들어, 중국어 후향이중모음 /ia, ie, ua, uo, üe/을 /ㅏ, ㅑ, ㅓ, ㅕ, ㅗ, ㅛ/ 등으로 표기하지 않고 /이아, 이에, 우아, 우오, 위에/ 등으로 표기하였다. 이표기 방법은 주요모음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어 성조를 발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4) 한어병음 교육의 목적과 수행

한어병음을 이용하여 실제음을 발화하든, 주음부호를 이용하여 실제음을 발화하든, 한글 자모를 이용하여 실제음을 발화하든 표기부호의 최종 목적은 음절 내의 현실음을 발화하는데 있다.

한어병음을 교육할 때 표기 부호에 따라 맞추어 하나하나 발화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어 음절 구조인 성모와 운모 그리고 성조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발화할 수 있게 지도해야한다. 주요모음 위치에 따라서 전향이중모음(前響二合元音), 후향

이중모음(後響二合元音), 중향삼중모음(中嚮三合元音)으로 돈들림 위치가 다르게 나타난다. 돈들림은 지각 능력의 기초가 되며 돈들림 위치에 대부분의 성조가 없으므로 종합적인 발음을 발화할 수 있게 가르쳐야 한다.

6. 결론

한국인 초급 학습자가 중국어 shuō의 /o/를 [o]로 발음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한어병음의 변이음들을 고찰해 보고 변이음들을 다양하게 대표변이음으로 귀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토론했다.

귀납의 다양성 때문에 부호와 실제음은 1:1 대응으로 실현 되지 않는다. 본고에서는 중국어 [i, i, u, y]를 대표 고모음으로 귀납하였고, [ə, e, ɛ]를 대표 중모음으로 귀납하였으며, [a]를 대표 저모음으로 귀납하였다. 이 이외의 다양한 대표 변이음 귀납 결과에 대해서 본고는 부정하지 않는다.

한어병음 교육은 성모·운모·성조를 포함한 중국어 음절을 위주로 진행되어야 하지만 본고 연구 범위를 모음으로 한정 시켰기 때문에 일부분의 내용만을 서술하였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수행에 대해서는 후행 연구 과제로 삼는다.

〈參考文獻〉

- 권영실, 「표준중국어 발음교육을 위한 운모 ong의 음성특징 고찰」, 『중국어 교육과 연구』 제15호, 2012.
- 맹주역, 「한어병음의 한계점과 극복의 방안」, 『중국어문학논집』 제60호, 2010.
- 맹주역, 권영실, 「한·중 파열음의 음성학적 대조연구: 한국어 'ㄱ/ㄱ'과 중국어 'g'에 대하여」, 『중국어문학지』 제25집, 2007a.
- 맹주역, 권영실, 「한·중 파열음의 음성학적 대조연구: 한국어 'ㄷ/ㄷ'과 중국어 'd'에 대하여」, 『중어중문학』 제41집, 2007b.
- 송시향, 「한·중 상향이중모음 운을 분석과 교육용 한글 표기 방법 연구」, 『중국어 교육과

- 연구』 제20호, 2014.
- 송시황, 「중국어 음절의 운율구조와 음장」, 『중국문화연구』 제28집, 2015.
- 신아사, 「한어병음방안을 활용한 중국어 발음교육에 대한 몇 가지 제언」, 『중국어 교육과 연구』 제11호, 2010.
- 심소희, 「한글-중국어 병음 체계의 연구」, 『한글』 제245호, 1999.
- 이미경, 「중국어 모음/e/와 /o/의 이중모음성 고찰」, 『중국어문학』 제48집, 2006.
- 한희창, 「표준중국어 모음체계에 대한 재분석」, 『중국언어연구』 제31집, 2010.
- 陈华斌, 「汉语普通话音位归纳的三点思考」, 『江南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第一期, 2003.
- 杨顺安, 曹剑芬, 「普通话二合元音的动态特性」, 『语言研究』 第一期, 1984.
- 胡裕树, 『现代汉语(增订版)』, 上海:上海教育出版社, 1981.
- 黄伯荣, 廖序东, 『现代汉语(增订版)』, 北京:高等教育出版社, 1991.
- 罗常培, 王均, 『普通语音学纲要』, 北京:商务印书馆, 1957.
- 王理嘉, 「北京话的高元音音位」, 『语文研究』 第一期 1985
- 王理嘉, 『音系学基础』, 北京:语文出版社, 1991.
- 王理嘉, 「重读《音位标音法的多能性》有感-纪念赵元任先生逝世十五周年」, 『汉语学习』 第二期, 1997.
- 王理嘉, 「汉语拼音方案与世界汉语语音教学」, 『世界汉语教学』 第二期, 2005.
- 王理嘉, 「儿化规范综论」, 『语言文字应用』 第三期, 2005.
- 王理嘉, 贺宁基, 「北京话儿化韵的听辨实验和声学分析」, 『北京语音实验录』, 1985.
- 王洪君, 『汉语非线性音系学』, 北京:北京大学出版社, 2008.
- 王辅世, 「北京话韵母的几个问题」, 『中国语文』 第二期, 1963.
- 徐世荣, 『普通话语言知识』, 北京:文字改革出版社, 1980.
- 赵元任, 『语言问题』, 北京:商务出版社, 1980.

〈中文提要〉

初学汉语的韩国学生往往把“shuo”中的“o”直接发成[o], 其一原因在于汉语元音的变体和音位归纳的多样性。汉语音位归纳的多样性与对韩的拼音教学策略问题值得关注。本文把汉语高元音归纳为[i, i, u, y]的四个音位, 把中元音归纳为[ə, e, ʌ]的三个音位, 把低元音归纳为

[a]。当然本文提出的这一归纳方法并非唯一的可能，然而从教学策略而言，这种归纳方式更利于教学。由于音位归纳的多样性，而拼音中的实际发音和音位并非一一对应。因此，一定要注意变体和音位的关系，以音节单位为主进行对韩拼音教学。

關鍵詞: 音素, 音位, 多样性, 汉语拼音方案, 对韩拼音教学

이 논문은 2016년 1월 10일에 접수되어 2016년 2월 11일에 심사가 완료되고 2016년 2월 11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